

한국 민주화운동과 국제주의 연대 - 일본 좌파 세력과 오에 겐자부로

〇 〇

[와다 하루키 회고록] 김지하를 구하라

한겨레 | 2006. 9. 15. 18:46

[한겨레] 와다 하루키 회고록-내가 만난 한반도/⑪ 민청학련 사건

1974년 6월7일, 일한(한일)연대연락회의는 이틀 전에 시작된 김대중씨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에 항의하는 한편 민청학련사건 체포자 석방 요구 데모를 한국대사관 앞에서 벌였다. 이 첫 데모 참가자는 100명이었다. 그 직후 나는 오다 마코토씨에게 얘기해 타이에서 열린 아시아인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김대중씨와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해 보고했다. 내 얘기가 끝나자 타이인 참가자가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한국인인가?" 그렇게 물은 사람은 타이사회당 서기장 분사농이라고 했다. 몇년 뒤 그는 암살당했다.

내가 타이에서 돌아오자 민청학련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우리는 민청학련 결성 때 배포된 장시 <민중의 소리> 전문을 입수했다. 그것은 배후조종자로 체포돼 기소당한 시인 김지하씨가 쓴 게 아닐까 생각했다. 6월16일 이 시를 김지하작이라 단정하는 <가디언> 와이만트 기자의 기사가 <요미우리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일한연대연락회의는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을 발표했다. 그 시는 한국민중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박 정권을 전면적으로 고발하고 규탄하는 선동시였다. 다음날 각 신문들이 기사화했다. <아사히신문>은 '김지하씨 작품인가'하는 정도의 기사를 내보냈으나 <요미우리>는 김지하작품으로 단정해 크게 다루었고 <주간 요미우리>는 전문을 실었다.

실은 이 <민중의 소리>는 김지하가 아니라 나중에 인권변호사가 되는,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 조영래씨가 쓴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는 김지하가 쓴 것이라 하여 주목을 받았고, 6월27일 일한연대연락회의가 처음 주최한 집회에서는 배우 사토 히데오씨가 낭독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지하 작품집은 1971년에 주오고론(중앙공론)사에서 벌써 나와 있었다.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는 당시 이미 그 책을 읽었다. 1972년 <비어> 때문에 체포된 김지하를 후원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이 움직였다. 그때 마산 결핵요양소에 있던 김지하를 찾아가 작가 마쓰기 노부히코씨가 오다 마코토씨와 상담한 결과 오에 겐자부로씨 등이 성명을 내기로 했다. 그 성명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그런 와중에 7월9일 김지하를 비롯한 민청학련사건 피고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음 날 오다, 아오치, 마쓰기, 오에, 쓰루미 슌스케, 히다카 로쿠로씨 등이 모여 재일조선·한국인 작가 김달수, 김석범, 정경모씨 등과 함께 급히 기자회견을 했다.

"<오적> <비어> <구리 이순신> 등의 작품을 통해 그에게 경의의 염을 갖게 된 우리는 이 시인이 극형에 처해지는 데 항의한다", '김지하 등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노력하겠다는 성명이 발표됐다. 이미 노엄 촘스키, 장폴 사르트르의 서명도 받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13일 김지하씨 등에게 사형 판결이 나오자 작가들이 또 모였다. 마쓰기씨가 단식항의를 제안하자 김석범씨가 "마쓰기씨가 하면 우리도 합니다"라며 응수했다.

7월16일 마쓰기씨, 김석범·김시중씨 등의 항의단식이 스키야바시 공원에서 시작됐다. 작가 이회성씨가 달려와 가담했다. 나는 항의단식은 전혀 경험한 바가 없어 쓰쿠마쇼보에서 빌린 텐트속에 다섯명이 들어앉아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청년동맹이 다타미와 또 하나의 텐트를 빌려주었다. 어쨌든 도쿄 중심가 공원 한 구석, 설새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두명의 일본인과 세명의 조선인이 항의단식을 하고 이를 응원하는 젊은이들이 뼈라를 뿌리며 서명과 모금활동을 벌이자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김지하 등을 죽이지 마라"는 호소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고 젊은이들이 서명하려고 걸음을 멈췄다.

단식은 19일 끝났으나 사흘간의 모금액은 백만엔이 넘었다. 그날 한국대사관 앞 데모에는 1천명이 참가했다. 이날 일한연대연락회의는 호의 뉴스를 발행했다. 앞면엔 1심 피고와 판결내용을 실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철, 유인태, 인민혁명당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중에는 나중에 서로 알게 된 김효순(<한겨레> 전 편집국장), 서중석(성균관대 교수)씨 이름도 보였다. 뒷면엔 쓰루미 슌스케씨의 글 <김지하, 최초의 말>이 실렸다. 72년 마산에서 만났을 때 김지하가 한 말이 소개됐다. "Your movement cannot help me. But I will add my voice to help your movement.(당신의 운동이 나를 도울 순 없지만 나는 당신의 운동을 돕는 데 내 목소리를 보태겠다)" 이 말은 우리 운동의 정신이 됐다.

7월20일 김지하 등 5명의 피고인들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아오치 신씨가 민청학련사건 피고의 법정진술 요지를 발표했다. 김지하는 말했다. "유신독재 타도만이 이 민족을 구하는 길이다. 학생들만이 희망이다. ...학생운동을 돕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7월25일 요미우리 홀에서 우리는 '김지하 등 모든 피고인들을 석방하라, 죽이지 마라' 집회를 열었다. 1200명이 들어가는 회장은 만원이었다. 오에 겐자부로씨는 김지하의 시를 두편 낭독했다. 오에씨는 <황토길> 앞 부분을 10매의 색종이에 써서 우리에게 건네며 그걸 팔아서 운동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월27일 스키야바시 공원에서 제2차 항의단식이 시작됐다. 쓰루미 슌스케, 김달수, 미술평론가 하리우 이치로, 역사가 이진희씨가 참여했다. 이번엔 젊은이들이 비에 약한 다타미 대신 발포 스티로폼을 사 주어서 바닥에 깔았다. 노숙자들한테서 배운 지혜였다. 30일 단식이 끝났는데 모금액은 이때도 백만엔에 달했다. 저녁에 '조국통일 재일지식인담화회'와 일한연대연락회의의 공동주최로 '민족시인 김지하의 밤'이 요미우리 홀에서 열렸다. 다시 만원을 이뤘고 쓰루미씨가 "이대로 생애 마지막 날까지 걸어가고 싶다"고 가슴저미는 얘기를 했다.

8월8일은 김대중씨 납치사건 1주년이었다. 그 날 낮 김지하 등을 지원하는 국제위원회 방한단이 1만7000명의 서명 명부를 갖고 출발했다. 단장은 히다카씨였고 노벨상 수상학자인 미국의 조지 월드 교수가 함께 했다. 오후에는 김대중씨가 납치당한 호텔 그랜드

팔레스에서 나리타 도모미 사회당위원장, 미야모토 겐지 공산당위원장, 다케이리 요시가쓰 공명당위원장과 아오치 신, 오다 마코 토씨 등의 5자회담이 열렸다. 그것은 오다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정치범 전원 석방, 대한 원조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활동의 첫걸음으로 집회와 데모를 하기로 합의했다. 집회준비 절충작업은 내게 맡겨졌다. 사회당과 공산당의 국민운동 책임 자들과 어려운 협의 끝에 9월19일 메이지공원에서 국민 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세 당수와 오다, 아오치씨가 약 3만명의 데모대 선 두에 섰다.

그 2개월간의 질풍노도 운동은 베헤이렌 시민운동이 만들어낸 힘이 한국문제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꽃을 피운 것이며, 일한연대운 동이 운동으로서 이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해 연말은 인민혁명당 피고인 7명 문제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광고주가 (박 정권 압력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동아일보> 지면이 백지상태로 나간데 대한 연대운동도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동아일보> 광고난을 메운 시민의 광고가 강렬한 인상을 주었 다. <동아일보> 지원모임이 만들어져 조직적인 신문 구독운동을 벌였다. 일한연대연락회의는 다카사기 소지씨를 강사로 세워 '한 국어 배워 <동아일보> 시민광고를 직접 읽어보자'는 강좌를 시작했다. 나도 그때 처음 한국어를 배웠다.

1975년 2월에는 김지하 등이 석방됐고 3월1일에는 김지하가 '일본민중에게 보내는 제안'을 발표했다. 일한연대연락회의는 그 녹 음 테이프를 복제해서 팔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뒤인 3월13일 반공법 위반으로 김지하는 다시 체포당했다. 한국정부는 자신이 공 산주의자임을 인정한 김지하의 자필 진술서라는 걸 발표했다. 그리고 4월9일에는 인혁당 관련자 7명을 처형해버렸다. 우리는 연 일 가두 항의시위를 벌였다. 일본정부가 234억엔의 경제원조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처형이 감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웠다. 18일 항의집회에는 600명이 모였다.

그러던 중 김지하가 옥중에서 쓴 양심선언, 그리고 옥중메모가 일본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그 곤란한 송출작업을 해준 사람은 김 정남씨였고, 가톨릭 루트를 통해 빼낸 자료를 접수한 쪽은 가톨릭 정의평화협의회 평신도인 재일한국인 실업가 송영순씨였다. 양 심선언은 가톨릭 조직이 발표했고 옥중메모는 김지하 작품집 편집자인 중앙공론사 나카이 마리에게, 후일의 미야타 마리에게가 받아서 김지하 등을 돕는 모임이 발표했다. 나는 미야타씨를 돕는 한편 가톨릭쪽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맡은 송씨를 지원했다.

이때부터 미야타씨와 함께 김지하와 관련한 많은 일을 했다. 나는 대설 <남>의 번역진에 이름을 올리기가까지 했다. 김지하의 영문 시집도 간행했다. 다른 한편 송영순씨와는 그가 2004년 여름 서울에서 급사할 때까지 오래 우정과 협력관계를 이어갔다.

[와다 하루키 회고록] 김대중을 죽이지 마

한겨레 | 2007. 3. 29. 18:11

[한겨레] 와다 하루키 회고록-내가 만난 한반도/⑬ 소련 생활뒤 목도한 한국의 쿠데타

나는 1년간 소련에 머문 뒤 1979년 10월23일 일본으로 돌아왔다. 사흘 뒤 텔레비전은 한국 박정희 대통령이 KCIA(중앙정보부) 부 장한테 사살당했다는 경천동지할 뉴스를 전했다.

그 뒤 한국 정치정세는 서서히 정상화돼갔다. 1980년 2월에 김대중씨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복권됐다. 3월26일 김대중씨는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3김씨가 모두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4월에는 김대중씨가 수만명의 군중집회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서 김중필씨가 한국에 '행정의 시대'가 가고 '정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 말을 듣고 기뻐다.

하지만 봄에는 역풍이 불었다. 1980년 5월17일 한국에서 전두환 장군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대중씨가 군인들한테 연행당했고 계 업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5월20일 광주 학생 시민 데모대가 쿠데타군에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오치 신씨는 감기 가 났다 입원하고 있었다. 시미즈 도모히사, 구라쓰카 다이라 두 분과 상의해 지식인 15명의 항의성명을 5월23일 냈다. 쓰루미 슌 스케, 오에 겐자부로씨도 동석해 주었다. 27일 '자유 광주'는 진압당했다. 나는 소감을 <세카이> 7월호에 썼다.

5월22일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김대중 수사 중간발표'는, 원래 공산주의자로 국외에서 북한계 인사와 손잡고 북한에 동조하는 언 사를 내뱉은 김대중씨는 집권육에 사로잡혀 학생들을 선동하고 내란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히 살의에 가득찬 발표였다. '김 대중씨의 불투명한 부분'이라는 괴문서가 도쿄에서 나돌아 <산케이신문> 시바타 미노루 기자가 그걸 이용해 김대중씨는 공산주의 자였다, 극형을 피할 수 없다는 캠페인을 6월 초 <산케이신문>과 <주오공론(중앙공론)>을 통해 폄했다. 같은 시기 <아사히신문> 전 기자 다나카 아키라씨가 <아사히신문> 석간에 글을 써서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 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6월5일 석간) <마이니치신문>에는 시게무라 도시미쓰씨가 광주사건에 대해 '권세욕 강한 정치풍토- 비극의 온상은 여기에'라는 글을 썼다. 모두 쿠데타와 김대중씨의 체포가 필연적이라 보는 시각이었다. 나는 시바타씨의 캠페인과 다나카, 시게무라씨의 정치문화론에 토대를 둔 쿠데타 정당화론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스에 료스케씨와 상의한 뒤 <세카이> 8월호에 '김대중씨 말살 음모와 가담자들'이라는 논문을 썼다.

7월5일 아오치씨와 나, 히다카 로쿠로씨와 NCC(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쇼지 쓰토무 목사는 외무성 다카시마 마스로 차관을 만났다. 아오치씨가 김대중씨 고발이 1973년 납치사건 정치결착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다카시마 차관은 할 말이 없어 답 변하지 못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우리는 그 점을 붙들고 늘어졌다. 7월10일 집회에서 '김대중씨를 죽 이지 마라'는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오치씨와 한국문제기독교자긴급회의의 나카시마 마사아키 목사, 이치카와 후사 에 참의원의원 3명이 제창했다. 호소는 신문 텔레비전에서도 널리 다뤄져 학생과 시민이 끊임없이 다카다노바바에 임대한 자그마 한 사무소를 찾아와 운동 참가신청을 냈다. 도쿄 여기저기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군법회의가 시작된 것은 8월14일이었다. 문익환 목사, 고은씨, 이문영 교수, 조성우, 이신범, 이해찬씨 등 학생들이 김대중씨와 함 께 법정에 끌려나왔다. 9월1일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 직전에 나온 <쇼쿤(제군)> 10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그는 "김 대중이라는 인물은 한국의 민주발전을 위해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 도의심을 위해서도, ... 큰 방해요소, 독소라 할 존재다"고 말했다. 9월17일 1심판결은 김대중씨 사형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문을 한국정부로부터 건네받지 못하고 간단한 판결이유요지만 손에 넣었을 뿐이다. 적용법조는 기소장대로라 고만 돼 있고 사형판결 근거가 은폐돼 있었다. 결국 내란음모죄목으로는 사형이 적용되지 못했고, 일본정부와 정치적 결착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한민통 일본본부의장에 취임한 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서울에 납치된 뒤의 장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도쿄 한민통에 연락한 것 등을 이유로 사형판결을 내린 꼴이 됐다. 실로 무책임한 엉터리 판결이었다.

운동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으나 11월3일 제2심 사형판결이 나올 무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가장 강한 어려운 시기였다. 나는 교토에 있는 대학에 강연을 나가 쓰루미 슌스케씨와 만났다. 일본국민 다수가 김대중씨 구명을 바란다는 강한 인상을 일본정부에 주어서 중대 결의로 한국정부를 설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쓰루미씨는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적 작가 몇명에게 총리, 외상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좋은 안이었다. 오에 겐자부로씨는 이미 우리에게 집회에서 몇번이나 얘기해주었다. 그리하여 시바 료타로씨에게 쓰루미씨가 얘기하고, 마쓰모토 세이쵸씨에게는 아오치씨가 얘기하기로 합의했다. 작가들은 부탁을 들어주었다. 11월30일 구와나 교회에 강연을 갔을 때 교토까지 가서 쓰루미씨한테서 시바씨 편지를 받아 왔다. 또 한 사람의 작가 편지는 내가 받아서 12월1일 이토 외무대신 앞으로 3명의 작가 편지를 부쳤다.

11월29일에는 사회당위원장과 총평 사무국장이 스즈키 겐코 총리를 만나는데 아오치씨와 나도 동석시켜 주었다. 우리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형판결이 납치사건의 정치적 결착에 위배되는 것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11월21일 한국대사에게 '중대한 관심과 우려'를 전달한 총리는 "최후의 최후까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대답했다. 12월3일 서울에서 스즈키 총리 인형을 불태웠다.

그때 레이건 차기 미 대통령이 서울에 특사를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12월은 운동의 클라이맥스였다. 12월10~11일에는 국제문화회관에서 김대중씨의 생명을 우려하는 긴급국제회의가 열렸다. 기독교자의 국제적 연대가 살아난 회의였고, 미국에서는 전 국무부 한국부장 레이너드씨 등이 참가했으며 일본에서는 전 법무상 다나카 이사지씨가 참가했다. 12월17일은 스미야 미키오 도쿄여자대학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국 72개 대학학장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씨에 대한 극형을 막도록 일본정부에 요청하고 이문영 고려대 교수 석방을 요구했다. 12월22일은 노동조합 중심의 '김대중씨 죽이지 마 일본연락회의'의 그 달 두번째 데모가 열려 찬바람속에서도 1만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12월24일 '김대중씨를 위한 크리스마스' 집회와 촛불시위를 했다. 나는 안병무씨의 글 '미래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인용해 "김대중에게 크리스마스를"이라고 외쳤다.

'김대중씨를 죽이지 마'라는 외침은 글자 그대로 일본 전역에서 터져나왔다. 어느 부인은 "저토록 훌륭한 사람이 가엾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 사람이 7년 전 일본의 호텔에서 납치당해 해상에서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다카다노바바 역전 선술집의 젊은 주인이 서명운동에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5천엔짜리 지폐를 건네며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듯 말한 걸 잊을 수 없다.

1981년 1월23일 한국 대법원은 김대중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한 시간 뒤 각의결정으로 김대중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월30일 우리는 보고집회를 열었다. 그 결의문에 나는 이렇게 썼다.

"전두환 정권은 전세계에서 터져나온 '죽이지 마' 함성 앞에, 일본국민 다수가 참여한 그 함성 앞에, 한국국내의 소리없는 민(民)의 소리 앞에, 그 함성 때문에 움직인 각국 정부의 압력속에 마침내 김대중씨 살해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승리라고 부르자. 인간의 승리라고 부르자."

우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이며,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고, 결코 오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른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과 어떻게 엮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특히 우리는 한국 국민이 김대중씨를 죽이지 마라는 소리없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으며, 거기에 연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했다. 동시에 우리는 설정한 목표, 김대중씨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을 지고자 했다.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운동 동료들은 조직 이름을 바꾸고 김대중씨가 석방돼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운동을 계속한 뒤 83년 4월 해산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회사원 노릇을 그만두고 서울에 유학해서 한국어를 배운 뒤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 한국문학 연구자가 됐으며, 지금은 와세다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호테이 도시히로씨다.